

아시아에서 국가적인 금연정책의 구축

편집부

아시아·태평양 금연연합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사회부의 후원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본지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한 마지막 내용이다. (Dr Judith M. Mackay 발표문)

(편집자 주)

III. 담배회사에 대한 역습

국제적인 담배회사들은 담배규제에 대한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외국담배회사가 아시아 국가에 침투후 생기는 효과는 단순히 국산 담배가 외국 담배로 대체되는 것만이 아니다. 외국의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담배에 해롭다는 증거를 부정하고

-교묘히 흡연을 조장하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도 흡연을 거의 하지않던 여성, 젊은이들을 겨냥하여 스포츠, 예

술, 학술 연구기관, 다른 조직들을 후원하면서 담배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줄이도록 한다.

-유료광고에 담배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치가에 대한 강력한 로비활동, 운동경기에서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한다.

-이중 규범을 갖고 있는데 즉, 담배회사의 자국에서는 오랫동안 담배광고가 금해 졌는데 필리핀과 같은데에서는 타르성분이 높은 담배를 건강에 대한 경고도 없이 팔고 있다.

-무역제재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한다. 예를들면, 심지어 국가적으로 담배의 판매와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담배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그러한 위협이 제기된 나라는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타일랜드이다. Philip Morris는 일본에서의 담배에 대한 관세부과의 중지와 대만에서의 최근 담배시장 개방은 미정부 무역대표부의 직접적인 협상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는 담배회사를 위해서 약소국에 무역제재의 정치적인 강요를 하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담배회사들은 이런일에 대하여 사과조차도 안

한다. RJ Reynolds는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기대했었다. 그것이 우리가 정부 관리들에게 투표한 이유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미국내에서 하듯이 마케팅과 장려기준을 똑같이 하려는 법안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건물이 원인을 모르게 불타버렸고 그 법안은 현재 보류중이다. 담배전쟁에서 최근에 소송을 통하여 흥미있는 발전이 있었다. 스웨덴과 호주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환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미국에서는 Wall Street 증권과의 담배에 관한 주식에 이 사건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다음 수십년간에 걸쳐 계속 증가될 것이며 서양의 담배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담배가 주로 정부의 독점이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다.

낙관론에의 주의 (A note of optimism)

담배규제에 대하여 낙관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통계수치는 안심할 만하지 않다. 담배로 인한 사망과 장애는 다음 수십년동안 걸쳐 확실히 증가될 것이다. 담배로 인한 연간 전체 사망률 현재의 300만에서 2025년까지는 1,000만으로 증가될 것이다. 1,000만 사망중에서 700만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담배회사들의 행동도 역시 안심할 만하지 못하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낙관적이다.

건강에 대한 자료들이 천천히 취합되



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몇몇 민간조직에서 그렇다.

-국가적인 대응조치: 아시아 지역에서의 몇몇 나라들은 담배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몽고, 홍콩, 베트남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에서는 국가적인 금연기구가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흥부/암협회가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방글라데시아는 적극적인 소비자단체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에는 비흡연자 권리운동이 진행중이다.

1990년까지 90여개국 이상이 흡연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많은 나라가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법률을 강화하였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중국에 있다. 담배규제에 있어서 첫 발자국을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미 내딛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